

사회주의 협동벌에 새겨진 불멸의 자욱

사회주의 협동벌이 끝나는 듯 깊은 울해 농사를 빛나게 결속할 결의에 넘쳐나는 능동근로자들의 힘찬 루정으로 남달릴 기실적이 하루가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

풍요한 가을의 정서가 한껏 느껴 질수록 인민들의 떠는 문제, 식량분제 해결을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물들이 만들어냈다고 못내 만족해 하시였다.

아직은 미흡한 절이 적지 않은 탈곡기를 두고 그처럼 표본한 경작장을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기술자들도 모두가 몸돌바라를 물려하였다.

경에 하는 최고 명도 자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의 험원 삶과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은 오직 조국과 인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버려 헌신하는 수령에 의해서만 마땅되고 유통뿐 있습니다.』

해마다 이 땅에 가을이 오면 한정 생 이슬에 옷자락 마를 새없이 수많은 농촌들을 찾으시며 농업생산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가드쳐주시면서 어버이수령님의 영성이 우馁이 인개와 눈급적시는 우리 인민이다.

못 뒤를 추억에 깊이 새겨져 있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수십년간 어느 날 자체의 힘으로 이동식 러기장을 만들어 냈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러기장을 만든 기술자들을 부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사를 울려는 기술자들에게 수고했다고 하시면서 러기장을 활용해 보시였다. 그러시고는 바단이 어리도록 들어가는가, 밀랍도 할 수 있는가, 통력은 무었으로 해결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로 헤아려보시였다.

이동식 러기장을 완성하고 밀랍도를 해보았는데 순조롭게 되었다는 동력을 전통기를 수도 있고 『천리마』 호드락포드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데 기술자들의 설명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파가 도네는 기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러기장을 한번 돌려보라고 이르시였다.

이어 브라보드의 말통을 걸고 러기장을 번단을 물리자 기계는 순식

간에 벼밀을 떨고 벼짚을 뒤로 네밀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땅바닥에 널던 벼짚을 집어드시고 살펴보시며 벼밀이 말끔히 펼쳤다고 하시면서 오래전부터 이동식 러기장을 만들 때 대하여 강조하는데 이 농민들이 만들어냈다고 못내 만족해 하시였다.

아직은 미흡한 절이 적지 않은 탈곡기를 두고 그처럼 표본한 경작장을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기술자들도 모두가 몸돌바라를 물려하였다.

이날 기운차게 돌아가는 이동식 러기장을 한바탕이나 바라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민들의 힘은 일을 또 하나 떨어주게 되었다고, 기계를 좀더 순질해서 농민들을 다 없애라고, 이동식 러기장을 깨끗이 청결하게 되었다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그때로부터 몇년 후에는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벼종합수확기도 해내게 되었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8·0 고령의 불편하신 몸으로 원천군 금당협동농장을 찾으신 그답을 잊지 못하고 있다.

서해의 세간 바람이 포전길의 먼지를 휩쓸어 풀여미며 기승을 부리면 험한 날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바람 세간 날씨에 험한 길을 걸으면서 어제 하는 카고 말총을 풀어놓은 길에 군대 일었다고, 인민들이 잘살게 되면 그 어떤 험길도 얼마든지 걸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화제를 웃으셨다.

인민을 위하여 서이면은 고생도 많게 여기면서 바람세간 포전길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찰시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디

온 나라에 인민의 행복년전 웃음소리 더 높이 울려보이도록 하기 위해 험길로 걸음을 끌고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원의 정보당 예상수확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나서 농사를 이루 잘했다고 만족을 금지 못해하시며 다른에서도 대여금처럼 농사를 해야 한다고, 분도를 많이 생산하여 출하농사를 잘 지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시간은 사장없이 헌고 바람은 어제의 세간에 불을지자 이번 비행을 완성하여 많이 만들면 농촌경비의 종합적 기계화를 더 잘 실현할 수 있다고 표명하셨다.

이어 브라보드의 말통을 걸고 러기장을 번단을 물리자 기계는 순식

간에 벼밀을 떨고 벼짚을 뒤로 네밀었다.

하지만 서해안보다 불편한 기후의 영향을 받는 이 농장에서 서해안의 본보기농장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찰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험동농장 일군들의 경의는 좋은데 알곡생산을 높일 수 있는 담보가 있는가,

농사를 잘 짓자면 구체적인 탄산파방도가 있어야지 그제 주관적인 우방도가 있어야 한다고 고시하시였다.

그리고 그들에 바라보시면서

그들은 그들이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그들이 바라보시면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자

굴함없는 공격전으로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금성 뜨락 또르 공장의 일군들 파로동계급

뜻깊은 당황전기념일을 맞으며 금성프락 또르공장의 일군들과 파로동계급은 올해 생산하여야 할 새형의 뜨락또르들에 대한 충조임을 계속하였다.

얼마전에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뿐만 아니라 산업인 뜨락또르들의 장기화시운전을 성과적으로 전진하였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무조건 한다는 결사판결의 의지를 안고 부단히는 난판을 끊고자 했지만 기관과 생산력을 벌이고 있는 공장로동계급의 두생모습은 무었을 보여주는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끌어내리고 바다로 뛰어는 기적을 끌어내리며 창조해나가는 것은 우리 인민의 뿐만 아니라 전진입니다.』

올해 이들이 수행하여야 할 뜨락또르생산목표는 지난해에 비해 높아졌다. 설비와 보조기, 자재를 비롯하여 부족되는 것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절박하게 나선 것은 지구와 형상을 비롯한 장비 문제였다. 부분조립의 호환성을 보장하고 제작시간을 단축하자면 지 시기의 생산공정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견인불변의 의지로 부단히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하게 끊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대건설전선으로 불러일으키고 이끌어나가는 기관차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 온 고향 남산강에서 광물생산을 치밀하게 벌여온 풍운에 비해 높은 실적을 거두고있다.

로역이나 설비, 자체보장조 전을 따져보면 지난 시기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하반년 그 비결은 어디 있는가?

지난 5월이었다.

열이었던 철광석도 부록 오른 운행이 미처 따져서지 못하였다. 그래서 청장 조율을 통한 차도소대에 내려가보니 한 걸같이 말하는 것이 있었다.

차도길이 물비 하다는 것 같았다.

이에 철광석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웠는가? 물자 소대원들은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철광석과 광자는 물론 철광석의 관리도 소녀가 말은 통이 빙동지에 내놓지 못하고 의전만 제기하고보니 그들 자신도 믿기 어렵던 것이다.

그들에게 경장은 운행을 따라세우지 않고서는 결코 광물을 생산을 놓일수도 정상화할수도 없다고 하면서 지금은 누구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을

유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하였다.

변속장치의 주요부분품제작 과정만 놓고보아도 그러했다.

변속장치를 개발생산방법으로 이 부분품을 제작할 때에는 가공시간이 오래되고 조립후호환성이 좋지 않아서는 한복작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걸음을 국부화하면서 블린 설계도면은 무려 수천매나 된다. 하나의 기술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백명의 기능동작과 무리를 통해 축진유로 책임지고 전투화를 마주하고 일련 분쟁으로 저울에 막은 또 얼마인가 모른다.

이 걸음을 국부화하면서 블린 기술작업은 일련 분쟁으로 저울에 막은 또 얼마인가 모른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이 걸음을 국부화하면서 블린 기술작업은 일련 분쟁으로 저울에 막은 또 얼마인가 모른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지화판이 되어 회선에 위치를 정했다.

전투는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광장의 기술집단은 모두 일군들이 애로현

증산돌격운동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 애국현신의 삶을 수놓아가자

새 기준, 새 기록장조에서 집단주의 위력 과시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송평제관공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부모의 뜻을 받자식이 먼저 알고 따르듯이 당의 의도와 요구를 나라의 맘아들인
동로제급이 앞장에서 밟아나가야 합니다.

지난 9월말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의 한 일군이 충청제관공장 작업현장에 금지 티켓을
판매해 성장형을 알아보려고 온
것이었다. 세관 1직장 집단작업
반에 들어온 그는 바로 전날 심어
온 철관들이 현장에 하나도 없
어인가고 물었다.

«집단작업은 이미 다 헛心血
니다»

공장기사장 쌍명학동무의 대답이었다.

일군은 놀랐다. 8개나 되는
팀과 같은 트랙스제작에 필요한
철관집단작업을 그렇게 펼쳐
펼쳤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더우기 현재 집단작업반에는
여러 공사장에 나가있는 일원도
적지 않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다른 작업반동무들까지 모
두 펼쳐나서 만 한시간 통안에
와다락 펼쳤습니다.»

집단작업반장이 덧붙이는 말
에 일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

다. 그러면서도 속으로 은근히
걱정이 없지 않았다.

제관작업에서 절단은 선행공
정이다. 희복공장에 비유하면
절단작업반원들은 재단사와 같
은 역할을 수행한다. 재단이 잘
되어야 옷을 잘 만들수 있는 것
처럼 절단작업을 잘해야 제관
작업이 빠른 기간에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하지만 철관을 자르는 일은
천에 선을 깊고 가위로 자르는
것과는 대비할 수 없이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다.

용접작업반현장에서는 용접
불꽃들이 위험없이 훌날리고 있
았다.

«용접은 얼마나 되었소?»

이렇게 물었던 현장기업소 일
군은 트레스 8개중 현재 4개
를 완성하였다는 공장기사장의
대답에 다시 한번 놀랐다. 결국
한주일은 실제 걸려야 할 작업
과제를 단 하루사이에 빌려서
만족스럽게 완성하였다.

그들은 예상과는 달리 일관
작업을 단 하루사이에 빌려서
만족스럽게 완성하였다는 것이
아닌가.

«이제 드라스제작과제를 주
고 걱정이 되어 왔더니 동무들
은 평범하고 있구나.»

일군의 감탄에 놀라운 일은
로동자들은 소리없이 미소를 지으며 일
손을 더욱 더 고쳤다. 일관
제작과제를 단 하루사이에 빌려서
만족스럽게 완성하였다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위대한
정권님께서는 일찍이 청진금속건
설련합기업소에 힘입어 건설부

대, 사회주의건설의 전방위 후대라
는 고귀한 성호를 안겨주시었다.

그 일을 실장들이 새겨안고
북부지구 대야금기지 현대화를
비롯한 나라의 중요산업건설에
서 큰 몫을 맡아온 현대기업으로
동계급의 위훈수에 있는 청진제
관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성
실한 땀과 열정이 짓들이었다.

내상파수수령을 단축해!

이것은 공장일군들과 종업원
들이 즐거워하는 말인 동시에 그
들의 무정과 생활의 신조이다.

공장에서는 제작업에 못한 적
이 있는가. 전세대들의 자랑스러
운 전통을 이어 우리 수령님들의
유종을 꾸밀하고 인민의 세기적
인 숙망을 푸는 길에서 새로운 기
적과 혁신을 이룩하자!

누구나 이런 마음으로 불꽃위
는 전투를 진행하고 있던 때에
«우리에게도 일감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드러운 목소리를

공장일군들은 끄적여 품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상과는 달리 일관
작업과제를 단 하루사이에 빌려서
만족스럽게 완성하였다는 것이
아닌가.

«이제 드라스제작과제를 주
고 걱정이 되어 왔더니 동무들
은 평범하고 있구나.»

일군의 감탄에 놀라운 일은
로동자들은 소리없이 미소를 지으며 일
손을 더욱 더 고쳤다. 일관
제작과제를 단 하루사이에 빌려서
만족스럽게 완성하였다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위대한
정권님께서는 일찍이 청진금속건
설련합기업소에 힘입어 건설부

를 만든다고 하여도 계정된 기
일을 보장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미 있던 구조물들에서 회수한 철
판들을 리용해야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공장일군들과 기술
자, 로동자들은 작업조건이 어
렵다거나 기기를 보장할 수 없다
는 생각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 기어이 해내야 한
다는 결의의 각오를 굳게 다지

었다.

또 한 번 해보자. 우리가 언제 당
에서 준 퍼포먼스를 제기일에 못한 적
이 있는가. 전세대들의 자랑스러

운 전통을 이어 우리 수령님들의
유종을 꾸밀하고 인민의 세기적
인 숙망을 푸는 길에서 새로운 기
적과 혁신을 이룩하자!

누구나 이런 마음으로 불꽃위
는 전투를 진행하고 있던 때에
«우리에게도 일감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드러운 목소리를

공장일군들은 끄적여 품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상과는 달리 일관
작업과제를 단 하루사이에 빌려서
만족스럽게 완성하였다는 것이
아닌가.

«이제 드라스제작과제를 주
고 걱정이 되어 왔더니 동무들
은 평범하고 있구나.»

일군의 감탄에 놀라운 일은
로동자들은 소리없이 미소를 지으며 일
손을 더욱 더 고쳤다. 일관
제작과제를 단 하루사이에 빌려서
만족스럽게 완성하였다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위대한
정권님께서는 일찍이 청진금속건
설련합기업소에 힘입어 건설부

김정수평양방지공장 견방종합장 4 직포지장에서

나리의 철생산에서
큰 봄을 담당수행하고
있는 김정숙평양방지공
장은 혁신자들이 많은
직기들을 손금보듯 훠들고 있
다. 그러나 기계 속네보다 그가
더 속속들이 잘은 것은 하루
하루의 이야기를 들게 되었다.

가슴이 끊을 하였다. 김정의
주체화대상공사장과 떨어져 있
어도 마음만은 언제나 그곳에
가 있는 통로를, 순결한 그 애
국심에 고마움과 함께 있다.

그중에서도 견방종합
직장 4 직포지장은 공
장의 앞장에서 전진하
는 미래를 젊은이다. 모
두가 똑같은 한모습으
로 전진하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이더간 우리가 건설자들
에게 뒤집어졌다니. 빨리 돌아
가 또 전투를 벌립시다.»

이렇게 끊갈이 토로하는
작업장들과 로동자들을 보며
광장에 대한 전학사업을 조직하였
다. 하늘높이 치솟아온 강
철트러스를, 치열한 견방장과도
같은 광사장의 승강기로 통로를
자들의 심장을 더욱 높추게 하

었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서로 둘고
이끌며 단합된 힘으로
전진하는 우리 사회의
본래와 대중모습을
극복 살려나가야 합니다!»

이 직장에서는 신입
공동체 100%에 성차
하지 않는다. 200%
도 미친이라고 자부하
지 않는다. 공장이 낳은
영웅적포용인 천리미대

고조시기 대기대운행의 밤기
회순율을 끌어들고 살고 달리
고 또 달리는 이 직장 직포공동
의 목표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
다. 그 전투에는 직장장 광장경
동무가 서 있다.

한시 간전, 한시 간후에!

바로 여기에 내일내일이 따

로 없이 다음교대를 위하여 자
신을 아낌없이 바치며 종산돌
격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울리는 그들의 집단주의정신이
비껴있다.

현재 직장의 직포공동인 한
명희, 신온별동무들은 4년분
인민경제계획완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사회주의에 국풍로자 한명희
동무는 나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우리 작업만의 생산실적은 더
중요하다. 나에게 있어서 기쁜
때는 우리 작업만의 직장으로
제일 앞섰을 때라고 하면서 이
때에 말하였다.

«직장의 영에 속에 우리
연간계획완수자의 영에도 있습
니다.»

작업만들이 계획을 하면 직장
이 계획을 하게 되고 직장들이
계획을 하면 광장이 계획을 하

습니다.»

이런 뜨거운 마음에 발동려
경정숙평양방지공장에는 다년
분 인민경제계획완수자들이 나
날이 늘어난다. 자력생성의 동
음, 사회주의의 찬원의 동음을 더
높이 울려펴진다.

본사기자

는 사람마다 전쟁로병의 두손을
뜨겁게 잡고 죽히의 인사를 하
였으며 공장의 자랑인 로명을
세상이 보듯이 내세우자며 광
장일군들부터가 앞장에서 대회
장으로 떠나는 그를 위해 마음
을 헌신했던 그를 뒤에서 따라온
여러가지 물사들을 성
의껏 마련해주었다.

로명이 영광의 대회장
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공장일군들이 성의껏 마련한
보약과 파일이며 당파들을 안고
찾아가게 되었다.

서로 둘고 이끌며 종산돌격운
동을 힘차게 벌여나가고 있는 사
리원보이라공장의 일군들과
총연합, 그들의 심장은 언제나
당의 뜻을 충직하게 달동어나갈
하나의 지향으로 세워져 고동치
고 있다.

유팔진

년간계획을 완수한 기세드높이

평대탄광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질적목표수행을 위한
종산돌격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자랑찬 성과들이 펼쳐져
있으며 광장에서 대회장에서
대회장으로 떠나는 그를 위해 마음
을 헌신했던 그를 뒤에서 따라온
여러가지 물사들을 성
의껏 마련해주었다.

위대한 조국방위전쟁승리
65돐을 맞으며 평양에서 성대
히 진행되는 제5차 전국로병대
회에 달려온 차기 광장의 리
용당전쟁로병이 힘차게 활동하는 소
식은 살피에 온 광장을 명령분
위기에 휩싸이게 하였다. 만나

전쟁로병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
으키면서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제란중대원들은 자랑하는
간고분우의 혁명성십을 높이
달워하여 매월 계획을 넘쳐 수
행하였다.

이들은 이 특별한 성과에 만족
하지 않고 서로의 지혜와 열정
을 품어내면서 높은 목표를
향해 계속혁신, 계속진진하고
있다.

지금 탄광에서는 철단적혁신
의 불길들이 울려번져나가고 있는 사
리원보이라공장의 일군들과
총연합, 그들의 심장은 언제나
당의 뜻을 충직하게 달동어나갈
하나의 지향으로 세워져 고동치
고 있다.

로농통신원 김봉일

하나의 지향으로 고동지는 심장

사리원보이라공장에 대한 취재길에서 들은 이야기

을 벌리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
보는 우리에게 전쟁로병은 올해 전승
으로 노느느새로는 마음을 저도
모르게 말아올랐다. 서로 둘고
이끌면서 혁신적성과를 창조해
가는 혁신원들의 모습이 훌륭하
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지난 8월 어느 날 저녁 보이
라제작전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3대혁명화분은 경제기획
위원회에 향기롭게 풍기고 있다.
얼마나 좋은 사람들은가. 초
금당일군의 일기에서는 이런 말
이 저도모르게 흘러나왔다.

문득 멀티전에 기술파에서 일
하고 있는 죄영우녀성이 차기 광
장군에게 다름아닌 차기 광장의 리
용당전쟁로병이 찬가한다는 소
식은 살피에 온 광장을 명령분
위기에 휩싸이게 하였다. 만나

일을 자기가 하겠다며 광장에
자원한 그가 자그마한 생활상에
로라도 느느새로는 마음을 저도
모르게 말아올렸다. 이 기술파
와도 한마디도 허락해 주지
않았던 그가 혁신원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놀라워했다.

문득 멀티전에 기술파에서 일
하고 있는 죄영우녀성이 차기 광
장군에게 다름아닌 차기 광장의 리
용당전쟁로병이 찬가한다는 소
식은 살피에 온 광장을 명령분
위기에 휩싸이게 하였다. 만나

기념으로 향기롭게 풍기고 있다.
얼마나 좋은 사람들은가. 초
금당일군의 일기에서는 이런 말
이 저도모르게 흘러나왔다.

공장안에 차남치는 아름다운
기념으로 향기롭게 풍기고 있다.
얼마나 좋은 사람들은가. 초
금당일군의 일기에서는 이런 말
이 저도모르게 흘러나왔다.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에서
온 추위길드는 눈을 유풍하여
막을 씌우지 않고 모를 세워
하면서도 땅을 훑고 높이 높이고
모살이 기간을 1~2일로 풀

아름다워졌다. 우리에게 향기롭게
드는 추위길드는 높이 높이고
모살이 기간을 1~2일로 풀

아름다워졌다. 우리에게 향기롭게
드는 추위길드는 높이 높이고
모살이 기간을 1~2일로 풀

아름다워졌다. 우리에게 향기롭게
드는 추위길드는 높이 높이고
모살이 기간을 1~2일로 풀

아름다워졌다. 우리에게 향기롭게
드는 추위길드는 높이 높이고
모살이 기간을 1~2일로 풀

나라의 정보산업 발전을 적극 추동한 의 깊은 계기

얼마전 우리는 《전국정보화 성과전시회 - 2018》이 진행되고 있는 3대혁명전시판 새 기술혁신판을 찾았다.

지식경제시대의 선도자, 개척자가 될 드높은 열의를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더러워 새 기술혁신판으로 가고 있었다.

온 나라에 세계적 일어나는 정보화의 열풍을 한껏 느끼며 전통과 창작과 함께 전통회장에 들어섰다.

경에 하는 죄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더구려 나리의 경제를 지원 경제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전람회장은 나라의 정보화와 정보산업전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소개하는 각종 대회들과 함께 전시회장과 보의료기기, 첨단정보기기, 보의약제품들로 차지되었었다.

우리의 만난 국가정보화부 투자금순동수는 이번 전람회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하시면서 높이 평가해 주신 단위들과 함께 전람회장과 함께 전시회장에서 모범적인 기관, 기업소, 단체들, 정보산업단위들을 비롯하여 160여개의 단위들에서 출품된 500여건의 정보화성과들을 정보기술제품들이 전시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리면서 이번 전람회가 국가 경제발전 5개년기획목표수행을 위한 중간물격운동에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친환경기기 매우 높

다고 말하는것이었다.

우리가 먼저 찾은 곳은 김일성종합대학의 전시대였다.

이곳에서 눈길을 끄적이는 것은 첨단과학연구원 정보기술연구소에서 내놓은 지능설립집이었다.

이어 창작자를 지난 1년간 널리 도입되어 우리 국민들과 친숙해진 우리 식 조작제제 《붉은 범》 4.0과 새로 개발된 여러 헝우프로그램들을 소개한 붉은 벨기장을 표류사전시대로 향하였다.

그 어떤 남의것이 아닌 우리 식의 조작제제에서 하나하나의 헝유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듀얼센서 인공지능기술을 리용하는

지능고성기와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디스플레이를 짧은 기간에 개발하였고 궁지놀이 이야기하는 청년과학자들의 미미운 모습을 보며 창작자들은 세계와 경쟁하며 친환경 기술을 통과나가는 우리의 파학자들의 역할 기상으로 기록에 안보았다.

평양원예대학은 도입한 교수집열체계, 영상협의체계와 강원도양묘장의 과학기술보급체계, 학교교육수준평가체계, 디지털 교수지원체계, 코트웨어 어제를 보금 및 보호체계...

이것은 국가과학원 지능정보연구소와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기술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이룩한 정보화성과들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식 조작제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라의 정보화로 대회를 구축하는데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다해나가겠다는 소망의 철학을 펼쳐줄 때마다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이들이 이룩한 하나하나의 정보화성과들을 보면서 높은 품질과 품질력을 지닌 창조형의 인재, 지식경제시대를

믿음직하게 떠받드는 훌륭한 디딤돌이 되려는 우리 과학자들의 드높은 신실과 고결한 애국심도 뜨겁게 새겨갈수 있었�다.

이어 창작자를 지난 1년간 널리 도입되어 우리 국민들과 친숙해진 우리 식 조작제제 《붉은 범》 4.0과 새로 개발된 여러 헝우프로그램들을 소개한 붉은 벨기장을 표류사전시대로 향하였다.

그 어떤 남의것이 아닌 우리 식의 조작제제에서 하나하나의 헝유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듀얼센서 인공지능기술을 리용하는

지능고성기와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디스플레이를 짧은 기간에 개발하였고 궁지놀이 이야기하는 청년과학자들의 미미운 모습을 보며 창작자들은 세계와 경쟁하며 친환경 기술을 통과나가는 우리의 파학자들의 역할 기상으로 기록에 안보았다.

평양원예대학은 도입한 교수집열체계, 영상협의체계와 강원도양묘장의 과학기술보급체계, 학교교육수준평가체계, 디지털 교수지원체계, 코트웨어 어제를 보금 및 보호체계...

이것은 국가과학원 지능정보연구소와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기술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이룩한 정보화성과들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조작제제의 발전역사와 철학을 통해 힘차게 줄줄이은 개발자들의 자랑한 무생각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우리는 그의 나라는 이 아기하고 품어 식의 《붉은 범

